

“해킹 꼼짝마!” SKT의 자율주행 보안솔루션 MWC서 공개

5G 이동통신기술 대거 시연·전시
‘양자보안 게이트웨이’ 기술 공개
모바일엣지 컴퓨팅 서비스도 선보

SK텔레콤이 오는 25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막하는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19’에서 양자암호 게이트웨이, 모바일 엣지 컴퓨팅 등 5세대(5G) 이동통신 기술을 대거 시연한다. ‘기술 수출의 장’인 MWC에서 시연 및 전시로 기술력을 알리고 기술 협력도 나선다.

SK텔레콤은 자사 전시관에 차세대 5G 기술 소개 및 비즈니스 미팅을 위한 ‘데모룸’을 마련하고,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주요 관계자를 초청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SK텔레콤은 기술 수출의 장인 MWC를 통해 다양한 파트너를 대상으로 기술 협력을 타진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MWC를 통해 인도 최대 통신사인 바르티에어텔에 1000억원 규모 네트워크 기술을 수출한 바 있다.

이번 MWC에서 SK텔레콤은 5G 자율주행차 해킹을 막는 ‘양자보안 게이트웨이’ 솔루션을 공개한다. 양자보안 게이트웨이는 차량 내부에 설치되는 통합 보안 장치다. 차량 운행에 필요한 각종 전자유닛과 네트워크를 외부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수문장 역할을 한다.

이 솔루션은 차량통신기술(V2X), 블루투스, 레이더, 라이더, 운전자보조시스



양자난수생성칩.

/SK텔레콤

템, 스마트키 등 외부 위협에 노출될 수 있는 각종 장치를 감시하고 위험 발생시 운전자와 관제센터에 상황을 알려 사태 악화를 미연에 방지한다.

특히 이 솔루션은 5G V2X로 주고 받는 차량 운행 데이터를 양자난수생성기의 암호키와 함께 전송해 이동통신 네트워크를 통한 해킹을 원천 차단하기도 한다.

SK텔레콤은 공동 개발사인 국내 강소기업 긴트(GINT)를 MWC에 초청해 이 솔루션을 함께 전시한다.

SK텔레콤은 지난 10월 독일 도이체텔레콤 산하 기술 회사인 모바일엣지X와 파트너십을 맺은 후 양사간 첫 결과물인

모바일엣지 컴퓨팅 기반 서비스도 이번 MWC에서 공개한다. 모바일엣지 컴퓨팅은 데이터 처리를 위한 서버를 인접 기지국·교환기 등으로 전진 배치해 데이터 전송 과정을 줄인다. 자율주행·클라우드·게임 등 빠른 반응 속도를 요구하는 5G 서비스에 유용한 기술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양사는 MEC가 적용된 산업용 솔루션을 전시하고, 기술력을 알린다. 이 솔루션은 ‘AR글래스’를 착용하고 있는 근무자의 위치와 응시하는 사물에 따라 실시간으로 업무 매뉴얼을 전달해준다. 예를 들어 수 많은 부품이 펼쳐진 책상을 응시하면 조립 방법을 알려준다.

아울러 SK텔레콤은 ▲인공지능 기반으로 품질을 최적화하는 네트워크 솔루션 ‘탱고’ ▲5G 28㎓ 기지국 시제품 ▲3D 기지국 설계 솔루션 ‘T-EOS’ ▲자율주행용 HD맵 등의 5G 기술도 이번 MWC에서 소개한다.

SK텔레콤 박진호 ICT기술센터장은 “MWC는 국산 기술을 글로벌 ICT기업들에 수출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며 “앞선 5G 기술력을 바탕으로 네트워크 컨설팅, 5G 기술 수출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SKT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 ‘메타트론’ MS 클라우드 플랫폼 ‘애저’에 담는다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파트너십

SK텔레콤이 마이크로소프트와 손잡고 11조원 규모의 글로벌 빅데이터 시장 공략에 나선다.

SK텔레콤은 마이크로소프트와 클라우드 기반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출시를 위한 파트너십을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SK텔레콤이 자체 개발한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 ‘메타트론’을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플랫폼 ‘애저’에 출시할 계획이다. 출시 서비스의 고도화 및 마케팅은 양사가 공동으로 진행한다.

메타트론은 빅데이터의 수집, 분석, 시각화를 돕는 솔루션이다.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 지원과 이미지 분석 기반 불량품 검출 등이 핵심 기능이

다. 현재 SK텔레콤 내 통신품질관리, SK하이닉스, IBK 등 10여개사가 활용하고 있다.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출시하는 메타트론 서비스는 기존과 달리 물리적인 서버를 구축할 필요가 없고, 애저에서 서비스를 다운 받아 설치하면 된다.

양사는 클라우드 기반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로 ‘메타트론 APM(자산성능관리)’을 오는 7월 출시할 예정이다. 메타트론 APM은 제조 설비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이상을 탐지하고, 고장을 예측한다.

SK텔레콤 최홍진 데이터 랩장은 “이번 협력은 SK텔레콤의 ‘메타트론’의 상품성을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은 쾌거로 세계 시장 진출의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폴 호프만 글로벌 영업총괄(왼쪽부터), 최윤규 대표(이상 비스텔) 장홍성 IoT/데이터 사업단장, 최홍진 데이터 랩장(이상 SK텔레콤), 이지은 엔터프라이즈글로벌사업본부 부사장, 그렉 골캠프 비즈 전략 담당 임원(이상 마이크로소프트)이 체결식 이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SK텔레콤



양자보안 게이트웨이 인포그래픽

/SK텔레콤

고용량 배터리·입체음향... LG전자, 실속형 프리미엄 스마트폰 3종



(왼쪽부터) Q60, K50, K40.

/LG전자

MWC 2019서 Q60·K50·K40 선택
6.26인치·5.7인치 등 ‘대화면’ 탑재

LG전자가 크고 실속 넘치는 신형 스마트폰 3종을 공개한다.

LG전자는 25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19’에서 Q60과 K50, K40 등 스마트폰 3종을 새로 선보인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하는 제품은 실속형 라인

업이지만 6.26인치, 5.7인치의 대화면을 자랑한다.

전면 베젤을 최소화해 한 손으로 잡기 편하도록 배려했다. 상단 중앙 카메라 부분을 물방울 모양으로 마감해 간섭도 줄였다.

AI카메라와 구글 어시스턴트 등 첨단 인공지능(AI)도 적용됐다. 사물을 자동으로 인식해 밝기와 대비를 스스로 조절해주고, 구글 어시스턴트 버튼으로 편리하게 음성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음향 효과도 프리미엄급으로 구현해냈

다. DTS:X 입체음향 기능을 탑재하면서 다. 이어폰이 없어도 최대 7.1채널 입체음향을 출력할 수 있다.

Q60 후면 카메라는 1600만, 500만, 200만 화소 3개로 구성된다. 인물과 배경에 맞는 사진을 한번에 찍을 수 있게 해준다.

아울러 K50과 함께 심도 카메라를 탑재해 아웃포커스도 만들 수 있다.

고용량 배터리도 강점이다. Q60과 K50은 3500mAh, K40은 3000mAh 배터리를 장착했다.

/김재우 기자 juk@

LGU+ ‘카카오프렌즈 키즈워치2’ 단독 출시

LG유플러스가 키즈용 스마트폰워치 후속작을 내놓는다.

LG유플러스는 카카오프렌즈캐릭터 디자인과 부모안심 기능이 탑재된 ‘U+카카오프렌즈키즈워치2’를 단독 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출가는 27만5000원이다. 공시지원금으로 구매 시 15만5000원을 지원받아 12만원에 구매가 가능하다.

U+카카오프렌즈키즈워치2는 지난해

3월 출시한 카카오프렌즈키즈워치 후속작이다. 아이가 쉽게 착용하도록 간편 버클 형태의 손목밴드로 변경했다. 목걸이 재질도 튼튼한 천으로 바꿨다.

아이의 위치, 배터리 상태, 발차취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부모안심 기능이 탑재됐다. 아이가 길을 잃거나 위급상황일 때는 보호자에게 자녀의 위치와 함께 경고 알람을 보내고, 아이가 통화가 연결되지

않을 때는 부모 스마트폰에서 아이의 키즈워치를 제어해 전화를 걸 수 있다.

고장이 나더라도 전화만 하면, 집 앞까지 방문해 제품을 수령해 가는 서비스를 도입했다. 현장 방문수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카카오프렌즈 키즈워치 고객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키즈 전용 요금제인 키즈워치 월정액으로 이용할 수 있다. 월 8800원에 데이터 200메가바이트(MB)와 음성 50분을 제공한다. 색상은 블루와 핑크 2종류로 각각 라이언과 어피치 캐릭터 디자인이다.

/김나인 기자



어린이 모델들이 ‘U+카카오프렌즈키즈워치2’를 소개하고 있다.

/LG유플러스